



"All things are under His control"

찬미예수!

대만 금철 백은영 선교사 대만에서 문안드립니다. 지난 시간 대만선교 현장에 함께 해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역과 시간을 초월한 성령 안에서 연합과 동역이 지속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① 대만 이야기 - 대만의 선거와 안보

대만은 예전처럼 5월에 매화비(梅雨)가 내렸지만 30도를 웃도는 한여름 기온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2024년 1월 13일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당마다 대통령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으로 분주합니다. 집권당인 민진당(民進黨)의 라이칭더(賴清德) 후보가 친중 두 후보 보다 여론조사에서 10% 이상 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내년 대선에서 민진당 후보가 당선되면 현재와 같은 정책기조가 이어질 것입니다. 정치권에서는 격렬한 논쟁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일반국민들은 대체적으로 요동하지 않고 평안한 일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만은 코로나가 다시 4번째 유행하고 있습니다. 매일 확진자와 사망자가 현재는 200명 정도인데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② 타이쥬 광야교회(基督教台中曠野教會) 소식

광야교회는 한국교회처럼 매일 새벽기도회로 시작해서 주중의 양육훈련,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와 함께 주 2회 땅밧기와 지역전도를 계속해왔습니다. 그러나 애타는 마음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열매는 적습니다.

3월과 4월에 예수전도단 선교팀을 초청하여 중독에 대한 특강을 듣고 같이 교제했습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세상방식으로 채우려는 시도는 중독에 빠지기 쉬우니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을 구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전도단 선교팀과 함께)

3월 19일(주일) 타이쥬 교외 굴밭에서 야외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오후에는 함께 등산도 했습니다.

아가페교회가 벌써부터 광야교회 방문을 원했는데 지난 5월 21일(주일)에야 이루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연초부터 기도하고 준비했던 만큼 은혜가 풍성하고 기쁨이 컸습니다. 원주민의 복장을 한 원주민(卑南族布農族)의 찬양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원주민들의 율동과 특송)

③ 가정이야기 - 코로나 확진

그동안 타이베이 학교 기숙사에서 건강하게 생활하던 딸 하림이 5월 18일 확진되어서 열흘간 큰 고통을 겪고 29일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장남 은찬도 타오위엔(桃園) 직장에서 또 막내 한빛도 한국에서 각각 확진된 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도 확진된 적이 없는데 대만에서는 백신도 안 맞고 확진도 되지 않은 사람을 "하늘이 택한 사람(天選之人)"이라고 합니다. 제가 수술 후 1년이 안 된 시점이라 스스로 조심하고 있습니다.



(교회 지체의 결혼식에서 만난 중국내지선교회(OMF) 설립자 허드슨 테일러(Hurdson Taylor)의 5대손 제이미 테일러 선교사 & 금 철 선교사)

④ 금 철 선교사의 갑상선암 수술 후 경과

금 철 선교사는 지난 해 7월 13일 갑상선 수술 후 현재

까지 건강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지병원에서 3개월, 7개월째 두 번 기능검사와 초음파스캔을 했습니다. 기능은 정상이고 수술부위도 재발없이 깨끗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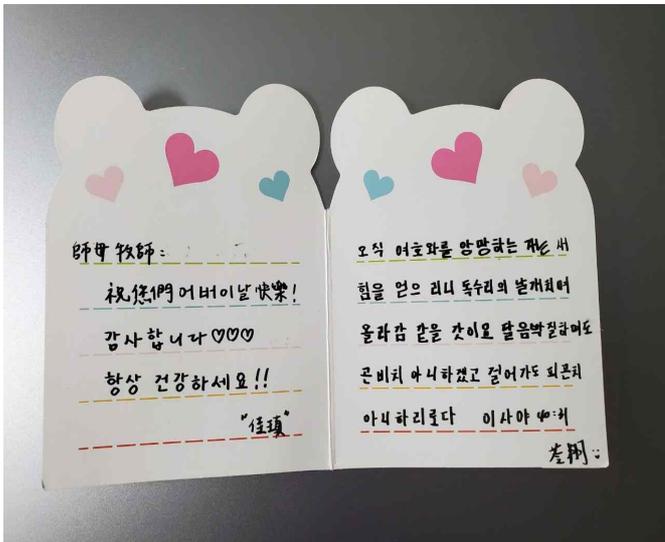
체력과 체중도 수술 전과 다름없이 유지하고 있습니다. 과로하지 않고 매일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운동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자세로 주님을 섬기다 보니 생활과 사역 속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큼니다. 변함없이 순전한 자세로 끝까지 충성되기를 힘쓰겠습니다. 올해 7월 말 다시 삼성병원에서 만1년째 정기검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종의 생명과 건강을 정하신 날까지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타이쥬 광야교회에서 열린 연합예배 장면)

⑤ 안식년 계획

예정대로 저희들은 6월 8일 - 9월 7일까지 안식년으로 입국합니다. 이때 가족과도 재회하고, 필요한 행정적 처리와 함께 후원교회와도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기간에 인천 계양선교센터에 머물게 됩니다. 7월 14일부터 18일까지 광야교회 식구들이 한국을 방문합니다. 한국교회의 신앙과 선교의 열정을 보고 잘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아텐(佳瑣)과 링씨양(苓翔)이 한국의 어버이날에 맞추어서 꽃과 한글로 쓴 카드를 가져왔습니다. 지아텐에게 3개월 한글을 가르친 적이 있습니다.)

⑥ 감사와 기도제목

- * 건강을 지켜주시고 생명 있음을 감사
- * 성령 안에서 언어와 지역을 초월한 동역을 감사
- * 가정과 사역의 현장에 주시는 은혜와 감동을 감사
- * 금 선교사의 형제와 자매들의 장로권사임직 감사

1. 대만 섬 2,300만 영적각성과 부흥을 주옵소서.
2. 타이쥬광야교회(台中曠野教會) 부흥을 위해서
3. 일대일훈련을 통해 성숙한 제자들이 세워지도록
4. 장모 이장임 권사의 신앙과 소망이 더욱 깊어지도록
5. 금철 선교사 갑상선암 재발이 없도록,
오른쪽 갑상선이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6. 2023년 안식년 사역을 위해서

2023년 5월 31일

대만 타이쥬에서

금 철 백은영(은찬 하림 한빛) 선교사 드림